

# 축산업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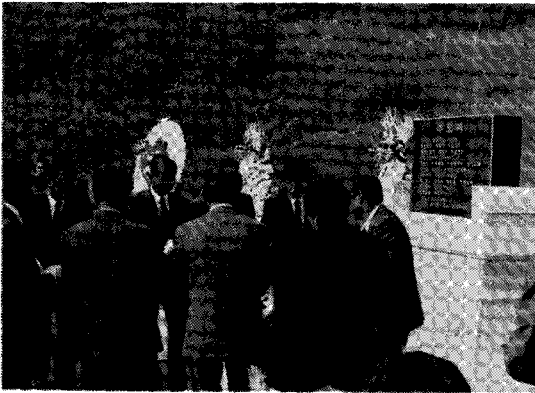
소식

통해 생시의 오교수 업적을 기렸다. 추모비는 오세정교수 추모사업회(회장 이재식)가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AAAP 상」 수상  
서울대 농대 한인규교수 선정



## 故 오세정교수 추모비 제막



故 오세정교수 추모비 제막식이 지난 11일 경기도 안성 생가에서 가족과 동료교수 및 제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제막식은 △약력소개 △추모사 △기념사 △묘비제막 △헌배 순으로 진행되었다. 맹원재 건국대 축산대학장과 오봉국 서울대 명예교수는 각각 추모사와 기념사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과 한인규교수가 아세아·태평양 축산학회(AAAP)가 주는 아세아·태평양 지역 축산과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위 상은 이번에 처음으로 한인규교수가 오는 11월23~28일(6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회 아세아·태평양 축산학회 총회에서 수상하게 된다. 시상식은 정기총회 개최식에서 태국 총리가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한인규교수의 수상은 우리나라 학자로서는 드물게 '88년부터 현재까지 영문으로 발간되는 아세아·태평양 축산학회지(AJAS)의 편집주간을 맡고 있는 공이 인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천호그룹  
마니육종 유병현 사장 취임



〈약력소개〉

- 서울대 대학원 졸
- 호주 시드니 대학 박사 취득
- 연방산업과학 연구원 동물생산과 책임연구관 근무
- 현 마니육종 사장

천호그룹은 독립경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마니육종에 신입 유병현 사장을 임명하고, 지난 15일 취임식을 가졌다. 유병현 사장은 국내에서 대학을 마친 뒤 줄곧 호주에서 20여년간 가금육종연구에만 몰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취임식에서 「육종사업은 개인기업차원을 넘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기존 보유계통을 토대로 육종개량사업을 전개하여 능력있는 국산계 개발에 주력 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무허가축사 구제조치 활발추진**  
19일 현재 8천93농가 구제

무허가축사 구제조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무허가 축사 구제조치에 따른 추진절차를 간소화 하고, 법적제재를 완화함에 따라 무허가축사를 신고 또는 허

가를 내는 양축농가가 점차 증가, 지난 19일 현재 8천93농가·1만3천2백22동이 구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상황을 각도별로 보면 충남이 1천9백15호로 가장 많고, △경기도 1천4백58호 △전남 1천3백86호 △경북 1천1백3호 △충북 9백16호 △강원 6백58호 △경남 2백95호 △전북 2백65호 △제주 70호 순으로 나타났다.

**축산인 체육대회 개최**  
축시·건국대 종합우승

축산신문사가 주최한 제5회 범축산인 체육대회가 지난 17일 성동구 모진동 건국대 축구장에서 축산인 1천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농림수산부를 비롯한 일반부 13개팀과 대학부 3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 영광의 종합우승에는 축산시험장, 대학부에서는 건국대가 각각 차지하였다.

**동·식물 검역소**  
조직대폭 강화키로

농림수산부는 동·식물 검역과 위생검사 기능을 조직과 장비를 통해 대폭 강화키로 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검역기능을 강화키 위해 현재 2과 5지소인 동물검역소를 앞으로 4과 5과지소로 확대·강화키로 했다.

**축산농가 전업화 추세**

## 산란계 증가, 육계는 감소추세

최근 산란계, 돼지, 소 사육마리수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왔던 육계는 올 하반기들어 감소했다.

그러나 닭, 돼지, 소 사육농가는 크게 격감, 호당 사육마리수는 증가해 전업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수산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금년도 가축통계조사결과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특히 닭사육마리수는 지난 9월 8천82만4천마리로 집계되어, 6월 8천5백14만마리에 비해 4백만6천마리가 줄어 5.1% 감소했으나 육계가 3개월만에 4백64만2천마리가 줄어들었을 뿐 산란계 마리수는 작년말 4천2백20만9천수에서 지난 3월 4천1백80만2천수, 6월 4천2백43만6천수, 9월 4천3백44만7천수 등으로 매 분기 급증추세를 보여왔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국 축산진흥대회 개최 한우개량과 고급육에 중점

농림수산부가 후원하고 축협중앙회가 개최하는 전국 축산인들의 큰잔치인 “제14회 전국 축산진흥 대회”가 지난 14~16일(3일간) 충남 서산소재 축협한우개량사업소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한우 자질개량도모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우품평회에 중점을 두고, 학술세미나 개최,

축산인의 밤 행사, 한우고기 시식회, 축산유공자 표창 등 다양한 행사가 거행 되었다.

특히 「한우를 세계 최고로 개량하자」는 슬로건아래 개최된 이번 대회는 쇠고기의 수입개방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하에 한우의 개량과 고급육화로 수입쇠고기와의 경쟁하에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축산인들의 결의를 다지는 동시에 새로운 축산기술과 정보의 폭넓은 교류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 종계수입 더이상 양기로 방침 세워 침체된 양계산업 부활 목적일환으로

농림수산부는 최근 종계수입과잉에 따른 전반적인 양계산업이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책 일환으로 앞으로 종계수입을 더이상 허용치 않기로 했다. 대한양계협회가 지난달 28일 농림수산부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 지난7일 이에 대한 회신에서 이와같이 밝히고 단 계획생산에 차질이 예상되는 일부농가에 대해선 업계간 조정물량만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올해 종계수입실적이 99만4천9백51수로 앞으로 수입추천 가능물량은 5천49수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배합사료 생산량 증가 작년보다 15.6% 증가

한국사료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 배합사료 총 생산량은 전월대비 5%, 작년

동기간보다 15.6%가 각각 늘어난 1백6만5천6백여톤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9월 사료생산량이 올 1월을 제외하고 금년들어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 하였다. 축종별 생산량은 양계사료 29만1천여톤, 낙농사료 16만여톤으로 한달전에 비해 1.1%, 3.4%가 작년 같은기간보다 9.6%, 8.3%가 각각 많이 생산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 한국계육협의회 계육외식업에 대한 세미나 개최

한국계육협의회(회장 김태웅)는 미사료곡물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0월22일 오후2시에 이촌동에 있는 농업기술진흥관에서 계육외식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KFC 품질관리 본부장을 지낸 존만박사가 「계육외식업의 운영과 품질관리」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 단일농정개혁안 공청회 개최 전국24개 농민단체 참가

전국농민단체협회를 비롯 4개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된 단일농정개혁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10월26일 농업기술진흥관에서 본회를 비롯한 24개 농민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농민단체, 시민단체, 경실련 등이 공동으로 농업정책 개혁안을 준비 이를 각 당의 정책에 반영시키고 대신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추진키로 하였다.

###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개정 10월13일부터 시행

농림수산부가 지난 7월10일 입법예고한 「동물의약품등 취급규칙」이 10월13일 개정, 확정했다.

'65년 7월15일 농림부령 제187호로 공표된 「동물약품등 취급규칙」은 8번의 개정을 거쳐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으로 제명이 바뀌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31일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축산과학기술강습회 개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동물자원과학과와 축산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제1회 축산과학기술강습회”가 지난 10월9일 동대대강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강습회는 축산과학기술연구소 설립 1주년을 기념하고 동물자원과학과로의 학과명칭변경 의미를 되새기는 뜻에서 열렸다. 이어 발표에 나선 서울대 한인규교수는 “세계축산, 사료사업현황 및 전망”에 대한 강의를 있었다.

